

통일부, 청년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다

- 청년 대상 「찾아가는 경청대화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」 첫발 내딛어 -

- 통일부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미래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 사업을 새로 마련했다.
 -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는 통일부 한반도평화경청단이 전국 각 대학에 찾아가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의견을 듣는 사업이다.
 -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지속적 소통 창구로 정례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- 통일부는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의 첫 행사로 7월 2일(목), 경희대학교를 방문하여 총학생회장, 단과대학 학생 등 다양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했다.
 -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 논의의 핵심 주제는 ‘한반도 평화공존과 청년의 삶’으로, 미래 한반도의 평화공존에 대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진솔한 생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.
 - 다수의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청년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점과, 오늘 행사에서 청년 주권이 존중된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.
 - 또한,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한반도 미래에 대한 청년 의견 경청 기회를 확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.
 - 동 행사에서 나온 상세 의견으로, 신창훈 학생(총학생회장)은 “통일 편익과 통일비용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면 좋겠다”, 한수연 학생(부총학생회장)은 “청년세대가 통일을 가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통일 관련 주요어를 알기 쉬운 내용으로 만들어 전하면 좋겠다”, 양아현 학생(행정학과)은 “통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” 서동현 학생(정치외교학과)은 “청년, 나아가 국민 대상 경청대화가 통일부

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”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.

- 이 외에도 통일부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다각화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설·운영 중이다.
 - 부내 청년수습 직원(인턴) 대상 ‘청년수습 직원(인턴) 정례대화’를 신설(’26년 6월)하였고, 의견수렴 회의와 체험 행사 등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 - * △(1회차) 청년대상 통일정책 의견수렴(6.18.) △(2회차) 현장체험 행사(판문점 특별견학, 6.26.)
 - 또한 ‘통일부 청년인력 모임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.
- ‘청년인턴 정례대화’와 ‘통일부 청년인력 모임’이 소통의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면, ‘평화경청 대학 현장(ON 캠퍼스)’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책을 채워나가는 확장형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.
- 통일부는 경희대학생을 시작으로 앞으로 만날 많은 대학생들의 제안을 엮어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,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·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행사 사진(별첨)

담당 부서	한반도평화경청단 한반도평화공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혜옥 (02-2100-5451)
		담당자	사무관	허선미 (02-2100-5455)

